

圖書整理의 諸問題

司書 金 光 永

目 次

緒 論

1. 分類問題
2. 著者記號表問題
3. 目錄記述問題
 - 가) 新書의 目錄記述
 - 나) 古書의 目錄記述

結 論

緒 論

우리나라에 近代的인 意味의 圖書館이 成立되어 많은 發展과 變遷을 가져왔다. 圖書館은 실로 成長하는 組織體요, 또한 圖書館의 資料는 利用을 前提로 하는 모두를 위한 利用者의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利用者에게 最大限의 時間과 努力을 節約할 수 있게끔 迅速・正確하게 研究資料를 提供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하겠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綜合化作業이 進行중에 있다. 이에 隨伴하여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14개 分館 및 7개 圖書室의 藏書를 一元化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3 년도 1/4 분기 藏書現況에 의하면 서울大學校의 總藏書數는 926,937 책인데, 그 중 本館의 藏書는 647,967 책이요, 分館의 藏書는 278,970 책이다. 本館의 藏書 가운데에는 奎章閣圖書가 128,184 책이고, 舊刊圖書(8·15 해방 이전에 수입된 도서)가 407,234 책이요, 新刊圖書(8·15 해방 이후에 수입된 도서)가 112,549 책이다. 그리하여 本館의 新간도서 112,549 책과 分館의 藏書 278,970 책은 一元化된 分類, 目錄에 의하여 整理하

고, 나아가서 그에 대한 一貫된 藏書管理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小論에서는 주로 綜合化에 따른 圖書整理의 문제점, 내지는 그에 대한 반성을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1. 分類問題

圖書館에 受入되는 資料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整理가 되지 않으면 利用하기 어렵다. 圖書館이 所藏하고 있는 모든 資料를 利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正確히 利用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그의 使命이므로 窮極的 目的인 奉仕活動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는 整理가 先行되어야 한다.

分類는 圖書整理의 첫 段階이다. 一般的인 意味에서 分類는 類似한 것을 모으고, 또는 類似하지 아니한 것을 程度에 따라 事物을 排列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의 分類란 많은 圖書館資料(주로 圖書)를 그 內容의 主題(때로는 形式)의 類似性에 따라 一定한 圖書群을 만들고,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論理的인 順序에 따라 配置하여 圖書의 利用을 能率的으로 하기 위한 技術이다.

圖書는 一時的 要求에 應하기 위해서 分類하지 말고, 오래도록 有用하고 第一 많이 利用되기 쉬운 곳에 分類한다. 著者나 書名下에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分類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主題 아래에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考慮하여 分類하여야 한다.

實務上으로 分類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難關에 봉착하게 된다.

가. 어떠한 資料이든지 分類表에 의하여 分類를 하여야 한다. 分類를 함에 있어서 학문의 체계, 내지는 한층 세분화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知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몇몇의 分類者의 知識으로 學問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의 圖書를 正確하게 分類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특히 純粹科學과 技術科學 分野의 資料를 分類함에 있어서 더욱 科學에 대한 知識을 필요로 한다.

나. 다른 하나의 애로점은 語學에 대한 問題이다. 大學圖書館은 다른 圖

書館과 전주어 볼 때 外國書가 비교적 많다. 分類를 함에 있어서 日語, 中國語, 英語, 월남어, 태국어 등으로 쓰여진 圖書의 分類問題는 學問의 세분화와 앞으로 빈번하리라고 예측되는 國際交換圖書를 상기하여 볼 때 자못 심각하다고 하겠다. 語學辭典을 동원하여 書名 정도 찾아 가지고 分類한다는 것은 圖書의 主題에 의하여 細密한 分類를 하라는 規定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다. 또 다른 하나의 애로점은 分類表에 없는 主題에 대한 問題이다. 分類表에 設定되지 않은 主題를 다룬 著作은 가장 가깝고 비슷한 關係가 있는 主題와 함께 分類한다. 이러한 主題의 圖書가 많아서 新主題의 設定이 必要하면 이것을 위한 項目을 新設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分類表 自體가 機械的이고 人爲的이며, 論理的이 아닌 곳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分類表에 新主題를 設定함에 있어서 學的인 전개에 의하여 행하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는 現在 圖書를 分類함에 있어서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16th Edition 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학문의 細分化, 내지는 展開를 포착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D.D.C. 17版도 참고하여 分類하고 있다. 그러나 D.D.C. 자체가 西洋을 중심으로 展開된 分類表이니 만치, 東洋學 分野, 특히 韓國的인 부분은 불합리한 곳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서울大學校에서는 D.D.C. Revision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D.C. 展開表)를 만들어 그의 短點을 보완하고, 또한 활용하고 있다. 總類 가운데 百科事典(031), 論文集(041), 定期刊行物(051), 學會(061), 新聞(071) 등에 있어서 韓國을 중심으로 展開하였으며, 哲學 가운데 中國哲學(181.1), 韓國哲學(181.2), 日本哲學(181.3) 등의 부분을 삽입하여 한층 세분하였고, 宗教에 있어서도 8項目이 基督教에 대한 것이니 만치, 佛敎(294.3), 儒敎, 道敎 및 韓國에서 발생한 宗教 등에 대하여 展開를 하였으며, 또한 社會科學에 있어서 韓國의 政黨(329.951), 法律(340), 韓國의 政治機構(354.51) 등에 대하여도 展開 내지는 細分하였다. 語學에 있어서도 韓國語(410)에 대한 分類表의 기호변경 및 展開를 하였으며, 藝術에 있어서는 書

法(754)에 대한 展開와, 아울러 한국민속음악에 대한 項目의 新設을 試圖하였고, 文學에 있어서도 韓國文學(810), 美國文學(A 820), 英國文學(820), 獨逸文學(830), 불란서문학(840), 이태리문학(850), 스페인문학(860), 라틴문학(870), 그리스문학(880), 中國文學(895.1) 등에 대하여 細分, 내지는 展開를 하였고, 歷史에 있어서도 韓國史(951), 中國歷史(952), 日本歷史(953)에 대한 分類記號의 변경 및 細分을 하였다. 실제로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서는 上述한 「D.D.C. 展開表」를 사용하여 왔으나, 일부 分館 및 圖書室에 있어서는 D.D.C. 를 사용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附屬圖書館과 同一할지라도 「D.D.C. 展開表」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따라서 本館 및 分館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D.D.C.의 展開表」가 요구되며, 서울大學校 綜合化에 따라 本館, 分館의 모든 藏書를 一元化하여 管理하기 위하여는 同一한 D.D.C. 및 「D.D.C. 展開表」에 의하여 分類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奎章閣圖書 128,184 책은 四部法(經, 史, 子, 集)에 의하여 分類되어 있으며, 舊刊圖書 407,234 책은, 東書인 경우에는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에서 만든 「和漢書分類法」에 의하여, 洋書인 경우에는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에서 만든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에 의하여 分類되어 있다.

이와 같이 奎章閣圖書는 四部法에 의하여, 舊刊圖書는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에서 만든 分類法에 의하여 分類되어 있다. 그리하여 奎章閣圖書, 舊刊圖書, 新刊圖書의 分類法이 相異하다. 따라서 相異한 分類體系를 어떻게 하면 最大限으로 活用하며, 合理的으로 運用할 것인가 하는 問題點이 있다.

2. 著者記號表 問題

著者記號는 著者の 姓名을 記號化함으로써, 같은 分類記號를 가진 圖書의 著者名을 알파벳 順으로 排列하게 하는 것으로서 마치 著者名 順으로 排列된 目錄을 檢索하는 것과 같이 매우 간편하다. 가장 유명한 著者記號表는 美國

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西洋圖書에 대한 著者記號이고, 이 原理를 모방하거나 利用한 著者記號表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서는 C.A. Cutter's Three-Figure Author Table 을 著者記號表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著者記號表가 西洋人名을 중심으로 작성된 表이므로 韓國, 日本, 中國 등 東洋의 人名에 대하여는 곤란한 點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本館에서는 이 著者記號表의 短點, 즉 東洋人名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C.A. Cutter's Three-figure Author Table Revised and Extended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著者記號表는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을 비롯하여, 法律圖書館(동서), 文理圖書館, 農學圖書館, 齒醫學圖書館, 藥學圖書館, 新聞圖書館, 語學研究所圖書室, 生藥研究所圖書室, 學生指導研究所圖書室 등에서 Cutter 의 著者記號表 및 그에 대한 展開表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教養圖書館, 美術圖書館, 音樂圖書館, 商經圖書館, 行政圖書館, 保健大學院圖書室 등에서는 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 (Swanson Swift Revision 1969)를 著者記號表로서 사용하고 있다. Cutter-Sanborn 도 역시 西洋人名을 중심으로 作成된 表이므로 韓國, 日本, 中國 등 東洋의 人名에 대하여는 그 적용에 있어서 곤란한 點이 적지 않다. 그러나 Cutter-Sanborn 의 短點, 즉 東洋人名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補完된 Cutter-Sanborn 의 展開表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못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서울大學校의 綜合化에 따라서 二元的인 著者記號表의 사용에서 一元的인 著者記號表의 사용이 要求되며, 또한 Cutter-Sanborn 를 계속하여 사용할진대 그에 대한 展開表가 必要하다.

3. 目錄記述 問題

가) 新書의 目錄記述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서는 標目的 選定은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에 의하여 圖書에 대한 標目을 選定하고 있으며, 目錄의 記述은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에 의하여 圖書에 대한 目錄을 記述하고, 또한 카드의 排列은 A.L.A. Rules for Filing Catalog Cards에 의하여 目錄카드를 排列하고 있다.

이 밖에 目錄記述에 있어서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도 參考하여 活用하고 있다.

상술한 目錄規則은 대체로 洋書에 관한 것이고, 韓國·中國·日本 등 東洋의 資料에 대하여는 곤란한 點이 적지 않다. 따라서 本館에서는 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s, 1957(中國, 日本 및 韓國資料의 目錄을 위한 豫備規則과 便覽)을 참고하여 活用하고 있다. 그러나 記述目錄의 機械化를 考慮하고, 또한 東洋資料에 관한 目錄規則의 未備한 點을 수정하고 補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大學校에서는 綜合目錄(Union Catalogu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의 編纂을 위하여 1969년 9월부터 法律圖書館 藏書(東書) 11,056 책을 整理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文理圖書館, 齒醫學圖書館, 美術圖書館, 教養圖書館, 新聞圖書館, 音樂圖書館, 藥學圖書館 등의 藏書 28,448 책을 整理하였고, 1971년에는 保健大學院圖書室, 語學研究所圖書室, 行政大學院圖書館, 農學圖書館, 學生指導研究所圖書室 등의 藏書 35,719 책을 整理하였으며, 1972년에는 商經圖書館, 大學院圖書室, 教育圖書館, 家政大學圖書室, 生藥研究所圖書室, 法律圖書館의 「설송문고」 등의 藏書 28,890 책을 整理한 바 있다. 1973년도에는 農學圖書館, 藥學圖書館, 經濟研究所圖書室, 語學研究所圖書室, 法律圖書館(洋書), 行政大學院圖書館(洋書) 등의 藏書 30,255 책을 整理할 計劃이며, 앞으로 工學圖書館 藏書 28,506 책은 本大學 移轉 後에 整理할 計劃이며, 또한 醫學圖書館 藏書 30,771 책과 病院圖書室 藏書 21,029 책은 醫學圖書館의 新築 後에 整理할 計劃이다.

上述한 綜合目錄 整理事業으로 本館 및 分館, 그리고 圖書室의 目錄記述은 어느정도 一元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作成된 目錄에 의하여 圖書原簿, 圖書의 레이플, 북카드, 대출기한표 등의 更新, 내지는 수정이 수

받되지 않으면 圖書의 利用은 곤란하다.

나) 古書의 目錄記述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는 奎章閣圖書 韓國本 18,774 부 69,362 책, 奎章閣圖書 中國本 5,601 부 62,082 책, 一般古圖書 14,748 책, 일사문고 1,033 부 2,554 책, 가람문고 707 부 1,606 책, 舊刊古書 14,631 책 등 많은 古書を 收藏하고 있다.

古書의 目錄記述은 白麟 編著 「古書目錄規則」에 의하여 古書에 대한 目錄을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이 目錄規則은 一般的으로 古書에 대한 記述目錄規則이요, 古文書 및 記錄類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곤란하다. 現在 本館에는 古文書 45,708 책, 舊韓末 外交文書 1,154 건, 記錄類 2,191 건을 收藏하고 있으나, 아직 整理가 되어 있지 않으며, 古文書 및 記錄類를 整理할 目錄規則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結 論

서울大學校의 綜合化作業이 進行중에 있다. 이에 수반하여 서울大學校의 모든 藏書는 一元化하여 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藏書의 一관된 管理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整理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로 圖書整理를 중심으로, 綜合化에 따라 藏書를 一元化하여 管理함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考察하여 보았다.

가) 分類 問題

上述한 바와 같이 奎章閣圖書는 韓國本과 中國本으로 나누고, 또한 四部法(經, 史, 子, 集)에 의하여 分類되어 있으며, 舊刊圖書는 東書인 경우에는 「和漢書分類法」에 의하여, 洋書인 경우에는 「Classification of European Books」에 의하여 分類되어 있다. 그리고 新刊圖書는 D.D.C. 16版 및 그의 展開表에 의하여 分類되어 있다. 이와 같이 多樣한 分類表를 어떻게 하면 最大限으로 活用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아울러 本館 및 分館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D.D.C.의 展開表」가 要求되며, 그것에 의하여 모든 藏書

가 分類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問題의 解決은 어느 一個人이나,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專攻分野別로 나누어 많은 專門司書, 教授 등의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學的인 展開에 의하여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 著者記號表 問題

서울大學校에서는 Cutter's Three-Figure Author Table 을 著者記號表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西洋書에 대한 著者記號요, 東洋書에 대한 著者記號로서는 適合하지 못한 點이 많다. 그리하여 Cutter's Three-Figure Author Table Revised and Extended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展開表)를 만들어 東洋人名에 대한 著者記號表로서 活用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分館에서는 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 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西洋人名을 중심으로 作成된 表이므로, 韓國, 日本, 中國 등 東洋의 人名에 대하여는 그 適用이 곤란하다. 허나 Cutter-Sanborn 은 東洋의 人名을 適用할 수 있는 展開表가 아직 作成되어 있지 못하다.

생각컨대 著者記號表에 관한 問題가 圖書整理에 있어서 核心的인 問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著者記號表에 대한 長點 및 短點을 검토하여 二元的인 著者記號表의 사용에서 一元的인 著者記號表의 사용이 要求되며, 아울러 Cutter-Sanborn 를 사용할진대는 그의 展開가 必要하다.

다) 目錄記述 問題

新刊東洋書 및 舊刊東洋書 가운데 國內圖書는 한글 로마자 表記法(1959년 문교부 제정)에 의하여, 中國圖書는 Wade-Giles 식으로, 日本圖書는 수정 Hepburn 式으로 著者(共著者, 團體著者, 編者, 共編者, 翻譯者, 共譯者 등 포함), 혹은 書名(叢書名 포함)을 로마자로 表記하여 基本目錄 및 著者書名 目錄에 있어서 西洋書와 함께 排列되어 있다.

이 로마자 表記는 일부 學生 및 教授들이 로마자 표기에 익숙하지 못하여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는 듯하지만, 한편 東書와 洋書가 서가에 있어서나, 目錄에 있어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長點도 있다.

생각컨데 學生 및 教授에게 參考室의 적극적인 活動에 의하여, 혹은 圖書館의 안내(Orientation)를 통하여 로마자 表記 및 圖書館의 利用方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古書의 目錄記述은 白麟 編著「古書目錄規則」에 의하여 古書에 대한 目錄을 記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古文書 및 記錄類에 대한 記述에 있어서는 곤란한 點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古文書 및 記錄類에 대한 검토를 하여 그러한 事項도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는 目錄規則의 修正, 내지는 更新이 必要하다.

新書의 目錄記述에 있어서 標目の 選定은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에 의하여, 記述目錄은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in the Library of Congress 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韓國, 中國, 日本 등 東洋의 資料는 Preliminary Rules and Manual for Catalogi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aterial 을 參考로 하여 整理하고 있으나, 실제로 實務를 함에 있어서 問題가 되는 點을 참고로 하여 목록기술에 관한 研究를 계속함으로써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綜合目錄의 編纂을 위하여 1969년도 부터 시작된 綜合目錄整理事業의 성공적인 결과는 어느 一個人이나,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곤란하고 본관 職員은 물론 分館職員의 協力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이상에서 서울大學校 綜合化에 따른 圖書館의 整理業務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보았다. 이러한 問題는 理論적인 것이 아니라, 實務上으로 보고 느낀 點과, 筆者 자신의 私案 내지는 “생각”이었음을 밝혀둠과 동시에,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課題이며 또한 宿題이다.